

제16권 10호

2026. 5. 26 ~ 2026. 6. 7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 이슈분석** 개인 투자자금의 새로운 종착지 ETF
- 금융경영브리프** MUFG, 'AI금융비서' 개발을 위해 Google과 제휴
OCBC, HSBC 인도네시아 리테일뱅킹·WM 부문 인수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물가에 재정 우려까지, 지속되는 채권시장 약재
외 환 : 외국인 증시 대량 순매도로 상승
부 동 산 : 주택시장의 지역별 회복 속도 격차 심화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연구원 이시은(sieunyi)

논단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이슈분석

연구위원 주윤신(jsju)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이재완(jwan.lee)
연구원 이시은(sieunyi)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외 환 | 연구원 이동현(dhlee11)
부동산 | 수석연구원 이재원(jaewon.lee)

금융지표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 04 **이슈분석** 개인 투자자금의 새로운 종착지 ETF
- 08 **금융경영브리프** MUFG, 'AI금융비서' 개발을 위해 Google과 제휴
OCBC, HSBC 인도네시아 리테일뱅킹·WM 부문 인수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물가에 재정 우려까지, 지속되는 채권시장 악재
외 환 : 외국인 증시 대량 순매도로 상승
부 동 산 : 주택시장의 지역별 회복 속도 격차 심화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안 성 학 연구위원

글로벌 증시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 저축성 예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ETF 등 펀드시장으로의 자금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 가속화는 은행에게는 가계를 통한 자금조달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으로 자금조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기업금융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국내 증시 급등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 확대

해외 주요 외신은 전 세계 증시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이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열풍을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AI 성장이 가져온 국내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실적 개선에 힘입어 5.14일 종가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202%나 상승하였다. 동기간 S&P500이 27%, NIKKEI22가 64%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3,700pt 이상 상승한 코스피에 비하면 미약한 것으로 느껴진다. 외국인투자자가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으나 개인투자자가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기관투자자와 함께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FOMO 현상이 크게 확산

이와 같은 주가 급등으로 늦게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려는 FOMO (기회상실 공포) 현상이 어느 때보다 확산되고 있다. 전업주부의 주식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주식계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 증권사 객장에 고령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을 통한 주택구매가 제한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 주식, ETF 등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 확대

이러한 흐름 속에 업권 간 자금유입 속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동안 예금은행 기준으로 은행예금(정기예금+실세요구불예금 포함)한 수시입출식예금)으로의 순유입은 21.1조원으로 전년 동기 10.2조원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가계 저축성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상당 폭
이동

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으나 증시주변자금(투자자예탁금+CMA)으로의 순유입 31.8조원에 비해서 오히려 적었다. 예금은행의 원화예금에서 올해 1분기 가계예금 순유입액은 1조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저축성예금은 아예 3.2조원 순유출되었다. 한편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은 1분기 동안 15조원 정도 줄었다. 비은행예금 중 저축성예금 비중이 90%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압도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저축성예금이 주식시장으로 상당폭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ETF 등 펀드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

특히 자산운용사의 수탁고는 올해 1분기 동안 109.9조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주식형 펀드 증가액은 52.3조원이나 된다. 이는 폭발적인 ETF 시장의 성장에 기인하는데 ETF 시가총액은 주가 상승과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ETF 매수에 힘입어, 올해 3월말 360.7조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5배 정도 성장하였다. 개인투자자들의 ETF순매수는 지난해 35.2조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2.7조원에 달하였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의 직접적인 주식순매수 외에 적극적인 ETF 순매수가 증시 상승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 증권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거래 증가

실적배당금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
하면서 증권사의 퇴직
연금 점유율이 점증

이와 같은 주식 및 ETF 투자는 다른 자산관리상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자산관리상품 중의 하나인 퇴직연금시장에서는, 보다 많은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적극적인 연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외 증시 상승으로 원금보장형보다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퇴직연금시장은 과거 DB형 위주로 운용되면서 은행 중심으로 성장하였지만 최근에는 운용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ETF를 통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권사를 통한 퇴직연금 가입이 늘고 있다. 은행의 퇴직연금 점유율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권사의 점유율은 2020년 20.5%에서 2025년 26.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ETF 투자가 가능한 투자
중개형 ISA가 전체 ISA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증권사 채널
선호가 확대

또한 세제혜택으로 투자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ISA도 증권사에서만 개설이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선호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투자중개형 ISA는 증시를 통한 주식 및 ETF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말 62조원으로 성장한 ISA시장에서, 투자중개형 ISA는 72.1%의 점유율을 보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투자중개형 ISA에서도 ETF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중개형 ISA에서 상위 10위 운용자산 중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월말 47.7%에 달한다.

❖ 은행권은 기업금융에 보다 집중하여 대응할 필요

이와 같은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 가속화는 은행의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확대 도입하고 있는 발행어음 및 IMA는 정기예금의 대체재 성격이 강한 데, 향후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본격적인 금리 경쟁에 돌입할 경우 은행 수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모임통장 등 생활밀착형 상품을 출시하거나 외국인 고객 유치, 비금융회사와의 제휴 확대를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들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은퇴 후의 월급계좌라고 할 수 있는 연금 수급 계좌에 대한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다만 가계예금 확보 노력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늘리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적 개선으로 자금이 쌓이고 있는 기업으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은행의 가계예금 증가액보다 기업예금 증가액이 3배나 많았다. 올해에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실적 개선에 따른 기업예금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들이 MMF, 랩 등 금융투자상품보다 기업예금, MMT 등 은행상품으로 기업자금을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가계대출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기업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기업대출 확대 경쟁이 부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AI 기반 신용평가 도입, 중소기업 데이터 확보 등 디지털 역량 제고, 산업별 전문 심사인력을 확대 등 보다 정밀한 기업분석을 함으로써 기업대출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 단순한 건전성 평가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등 중장기 상환능력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져 한다.

이와 같이 기업대출을 통한 이익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예금을 통한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기업금융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은행은 증권, 운용사, 벤처캐피탈 등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생애주기에 적합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수익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금 조달에 있어 가계 예금 이외에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으로 시야를 확대할 필요

보다 정밀한 기업분석과 미래 현금흐름 등 중장기 상환능력에 기반한 기업 대출 확대가 필요

개인 투자자금의 새로운 종착지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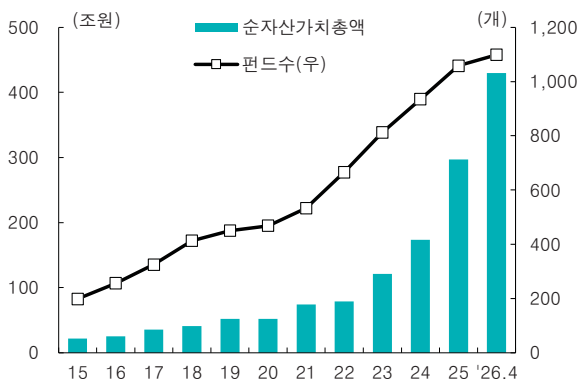
주윤신 연구위원

ETF가 순자산총액 400조원을 돌파하며 개인의 핵심 투자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인의 일반공모펀드 투자 수요를 대체한데 이어 최근에는 주식 직접투자 수요도 잠식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ISA 및 퇴직·개인연금 계좌 내 투자 비중 확대와 함께 대기성자금도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정책과 맞물린 기초자산 다양화 등으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 ETF 시장은 향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회사도 ETF 중심의 개인 투자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ETF 시장이 개인자금 유입에 힘입어 순자산총액 400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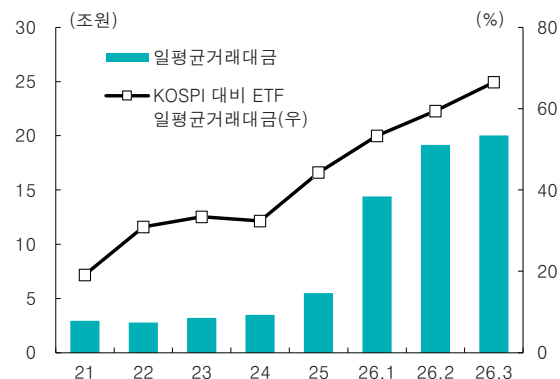
- 최근 국내 ETF 시장이 순자산총액 400조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 '02년 ETF 도입 후 순자산총액 100조원 도달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후 200조원은 2년, 300조원은 6개월, 400조원은 3개월 만에 돌파
- 동기간 ETF 상장종목 수도 1천개를 넘어섰으며, 일평균거래대금('26.1~3월 평균)은 '23년 대비 5.6배, 전년 대비 3.3배 증가한 약 18조원 수준을 유지
 - 상장종목 수(개) : 812('23) → 935('24) → 1,058('25) → 1,099('26.4)
- 특히, 개인이 주요 투자 주체로 부상하는 등 ETF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서 개인 투자자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
 - 유동성공급자(LP)를 제외한 ETF 개인 순매수대금 비중은 '23년 23.8%에서 '25년 48.8%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는 1~3월 기간 동안 57.5%로 확대

■ ETF 순자산가치총액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 ETF 일평균거래대금 및 KOSPI 대비 비중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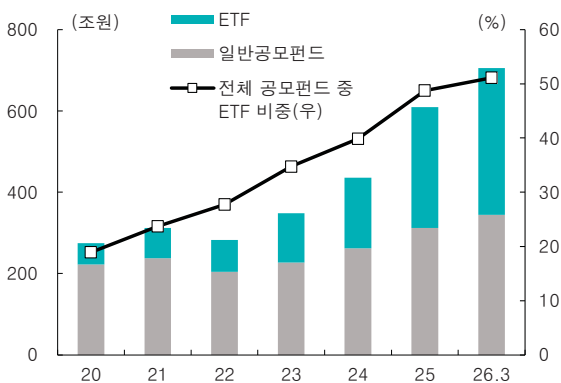
■ 일반공모펀드 시장을 대체한데 이어 최근에는 개인의 주식 직접투자 수요도 잠식

- 전체 공모펀드 중 ETF 비중이 '20년 19%에서 '26.3월 51%로 빠르게 확대되는 등 개인의 일반공모펀드 투자 수요 대부분을 ETF가 대체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
- 개인 투자수요가 높은 공모 주식형뿐만 아니라 채권형, 파생형 등에서도 ETF로의 개인 투자수단 변화가 가속화
 - 공모펀드 유형별 ETF 비중('26.3월)(%) : 주식형 79.4, 채권형 59.1, 파생형 87.3
- 특히, 최근에는 KOSPI 일평균거래대금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26.3월 기준 67%까지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 내에서 ETF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확대
 - 추가급등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3월까지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별 주식 37조원을 순매수하기는 했으나, ETF 투자 또한 지속되고 있는 등 투자방식에 변화

■ ISA 및 퇴직·개인연금 계좌 내 ETF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대기성자금의 유입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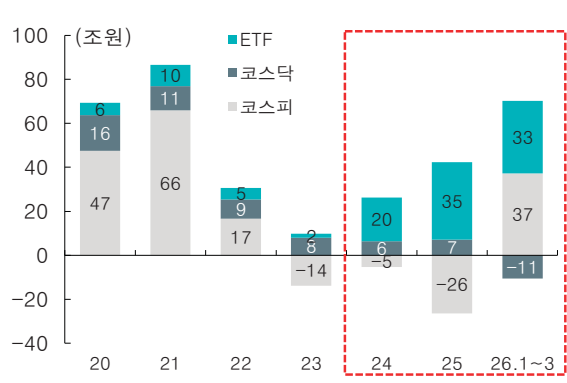
- 투자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개별 주식을 제치고 ETF 투자 비중이 증가
 - 투자중개형 ISA 운용자산 중 ETF 비중(%) : 20.5('21) → 19.7('23) → 47.6('26.3)
 - 투자중개형 ISA 운용자산 중 주식 비중(%) : 47.8('21) → 53.2('23) → 34.4('26.3)
- 장기 저비용 투자 이점을 기반으로 퇴직연금(DC, IRP), 개인연금(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내 ETF 투자도 빠르게 확대
 - 상위 5개 증권사 퇴직연금 내 ETF 규모는 '22년 2.1조원에서 '25년 18.3조원으로 약 8.9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ETF 투자 비중은 12.7%에서 39.6%로 3배 확대
- 과거 MMF나 은행 파킹통장 등에 유입되던 대기성 자금이 실시간 거래 편의성,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등을 강점으로 단기자금(파킹형) ETF¹⁾으로 빠르게 유입

■ 공모펀드 수탁고 및 ETF 비중 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 개인 주식시장 및 ETF 순매수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1] 국내 파킹형 ETF로는 단기채권 ETF, CD금리액티브 ETF, KOFR 금리액티브 ETF, 머니마켓액티브 ETF 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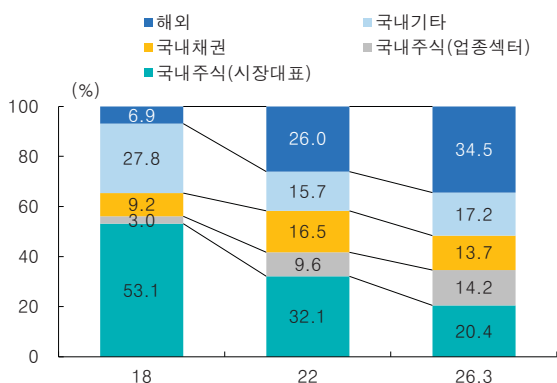
■ 시장대표지수 중심에서 테마형, 액티브, 채권, 해외 등으로 기초자산 및 상품구조가 다변화

- 국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시장대표 및 레버리지/인버스 중심에서 업종 섹터(테마형), 채권, 해외 ETF 등으로 상품 다양성이 확대
 - 국내주식(시장대표) ETF 비중(%) : 53.1('18) → 32.1('22) → 20.4('26.3)
- 최근에는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도 빠르게 증가('26.3월 전체 ETF 중 27%)하고 있는 가운데 액티브 주식형 ETF보다는 채권형/금리형 중심으로 성장
 - 글로벌 지수 산업 성장으로 패시브 주식형 ETF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패시브 ETF를 조합해 액티브하게 운용하고 있어 액티브 주식형의 발전이 더딘 편
- 대체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와 맞물려 금/은 등을 중심으로 한 대체자산 ETF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 중

■ 삼성, 미래에셋운용의 양강 구도 下 후발주자의 상품 차별화를 통한 틈새시장 진출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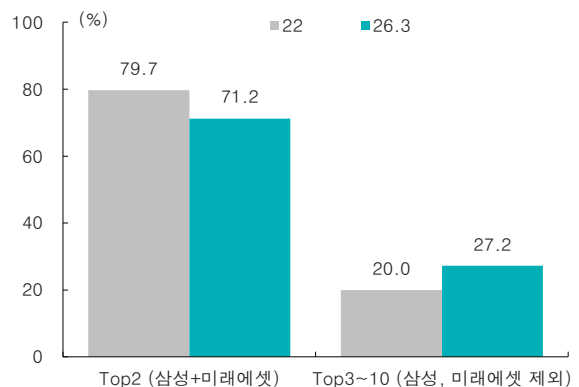
- 팬데믹 이전 시장대표지수 중심으로 상품 유형이 한정적이었던 국내 ETF 시장은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힘든 구조로 삼성자산운용이 압도적인 M/S를 보유
- 하지만 테마형 ETF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업계 2위인 미래에셋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삼성과의 격차를 축소, 이후 삼성, 미래의 양강구도를 형성
 - ETF M/S 변화(%) : 삼성 51.9('19) → 39.3('26.3), 미래에셋 24.9('19) → 31.9('26.3)
- 최근 들어서는 상품유형 및 구조가 보다 다변화되면서 후발주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 상품 출시를 통한 중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 및 성장기회가 확대
 - '26.3월 기준 삼성, 미래에셋을 제외한 상위 8개 운용사 M/S가 '22년 대비 7.2%p 증가

■ ETF 유형별 비중 변화



자료 : 한국거래소

■ Top10 ETF 운용사 점유율 변화




자료 : 금융투자협회

■ ETF 시장은 정부 정책과 맞물린 기초자산 다양화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과거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따른 자금유출입 변동이 컸던 국내 ETF 시장은 상품 다양성 확대와 함께 꾸준한 수요를 창출하며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 최근 발표된 ETF 관련 규제 변화는 상품 다변화를 통한 시장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실제 ETF 시장의 성장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세계적으로 상품군 진화와 함께 투자자 계층이 확대되며 글로벌 자산운용시장이 ETF 중심으로 재편
 - 전세계 ETF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ETF가 '22년 7조달러에서 '25.9월말 13조달러로 2배 가량 증가하였고, 상장ETF종목수도 4,453개로 확대
 - 미국 전체 펀드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 : 9('09) → 14('15) → 30('25.9)

■ 금융회사들도 ETF 중심의 개인 투자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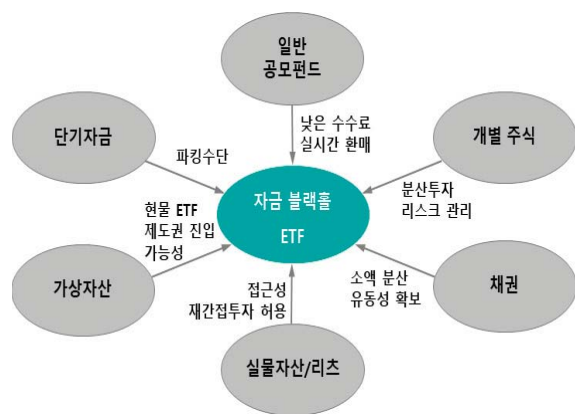
- 최근 ETF 시장은 일반 공모펀드와 주식 직접투자 등을 제치고 개인의 핵심 투자자산으로 부상하며 개인 투자자금의 블랙홀이 되고 있음
- 급격한 투자 환경 변화 가운데 개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ETF를 활용한 투자 서비스 제공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운용사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상품 전략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과열된 가격 경쟁 하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무분별한 보수 인하 경쟁을 지양할 필요
- 고객 접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등의 경우 연금, 신탁, 랩, ISA 등의 포트폴리오 기반 Vehicle을 중심으로 ETF 관련 서비스를 강화 

■ 최근 ETF 관련 규제 변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 허용 (레버리지 비율은 현행 ±2배 이내 적용)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국내/해외 상장)는 추가 심화 사전교육 1시간 추가 -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도 국내 상장 상품처럼 기본예탁금 1천만원 요건 신설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 만기 확대 -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만기.위클리옵션 도입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 지수 요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자료 : 금융위원회

■ ETF 시장으로의 개인 자금유입 확대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MUFG, ‘AI금융비서’ 개발을 위해 Google과 제휴

이재완 연구위원

MUFG는 AI기반 개인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Google과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AI를 통해 상품 선택에서 결제까지 제안하는 금융비서 서비스를 내년에 선보일 계획이다. MUFG는 지난해 출시한 M-tto를 중심으로 생활금융 플랫폼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제휴는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MUFG를 포함한 日금융회사들은 고객접점 강화를 위해 외부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기술협력 기반 개인금융 플랫폼 강화방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MUFG는 AI기반 개인금융 분야 서비스 개발을 위해 Google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1]

- MUFG는 사용자 맞춤형 AI agent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Google과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계획
 - MUFG는 Google의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개인 금융비서 서비스(AI agent)를 개발하여 개인고객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
 - 이를 위해 Google과 ‘Agentic commerce’ 및 ‘Agentic payment’ 영역에서 협력
- AI를 통해 상품 선택에서 결제까지 제안하는 금융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서비스로 확장하여 비금융 영역으로 연결을 강화
 - AI agent의 목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상품 검색, 최적의 결제 방법 제안 및 실행, 지출 관리를 자동으로 수행할 예정
 - 향후 헬스케어와 가계 자산관리를 결합해 이용자의 생활습관과 지출 성향을 진단/분석하는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

■ MUFG는 기술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생활금융 플랫폼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번 제휴는 지난해 5월 출시한 그룹 개인종합금융 서비스인 M-tto 앱을 일상생활과 연결된 금융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2]
 - '25년 5월 출시된 M-tto 앱은 은행, 카드, 증권, QR결제, 자산관리 등 MUFG의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개인종합금융 플랫폼
 - MUFG는 향후 M-tto의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Google AI를 접목하여 생활형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언급

[1] “MUFG to form strategic partnership with google”, The Japan Times, 2026.5.7

[2] “MUFGとグーグル、金融AIエージェントで戦略提携 「エムット」は「非金融」強化”, Impress Watch, 2026.5.7

- 또한 생활흐름 속에서 금융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리테일 플랫폼 구축을 위해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 OpenA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25.4) '26년을 목표로 대화형 AI인 ChatGPT를 MUFG 은행앱, 그룹앱 및 새롭게 출시될 디지털뱅크 앱에 연동할 계획
 - '26년 하반기 런칭할 디지털 뱅크에는 Google의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고객과 시장 변화에 따라 수수료와 금리를 민첩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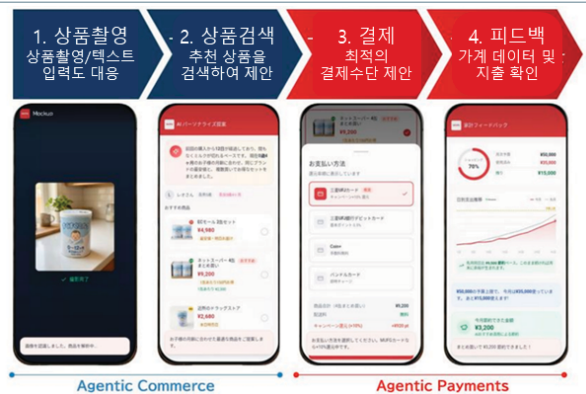
■ 日 금융회사들은 고객접점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술기업과 협력을 확대

- (SMFG) 소프트뱅크와 제휴를 맺고('25.5) SMFG의 앱 'Olive'와 간편결제 서비스 'PayPay'를 연동, 소프트뱅크의 AI기술을 활용한 개인 금융 컨시어지 기능 확대³⁾
- (MIZUHO FG) Google과의 제휴를 통해('2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Google의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도쿄해상홀딩스) Open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25.9)하고 보험 및 리테일 금융 영역에서 고객문의 응대 및 상품기획을 위한 맞춤형 AI agent 개발을 추진⁴⁾

■ 국내 금융회사들도 외부 기술협력 기반 개인금융 플랫폼 강화방안을 제고할 필요

- 일본 금융회사들은 AI를 고객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리테일 플랫폼 경쟁이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 중심으로 진화한다는 점에 주목
- 개인금융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및 데이터 등 외부 기술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비금융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경험을 고도화할 필요
 - 은행, 증권, 카드, 보험을 연계한 통합 경험 및 AI 기반 자산/소비관리 강화⁵⁾

■ MUFG Agent commerce/payment 흐름



자료 : MUFG

■ 日 주요 금융회사의 기술기업 제휴 사례

회사명	제휴사	주요 내용/목적
SMFG	소프트뱅크, Money Forward 등	리테일 플랫폼 'Olive'를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고도화, AI agent 기능 도입
MIZUHO FG	Google	고객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도쿄해상 홀딩스	OpenAI	AI기반 고객경험 혁신 및 보험 운영모델 전환

자료 : 언론보도

[3] "Olive를 미래형 슈퍼앱에 'AI-Olive'로 개인화", Impress Watch, 2025.5.16

[4] "Japan's Tokio Marine and OpenAI to partner on developing AI agents", Reuters, 2025.9.25

OCBC, HSBC 인도네시아 리테일뱅킹·WM 부문 인수

이 시 온 연구원

싱가포르계 은행들은 동남아 공략의 일환으로 인니에서의 디지털 뱅킹 구축과 인수를 통해 리테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OCBC는 최근 HSBC의 인니 리테일 뱅킹 및 자산관리 부문 인수를 통해 리테일 부문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HSBC는 기업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인니 지역 사업구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은행들도 향후 아시아 지역 기업금융 중심 전략을 재검토하여 현지 고객기반 확대·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향 등 중장기 사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OCBC는 현지 리테일 역량 강화를 위해 HSBC의 인니 리테일·자산관리 부문 인수를 결정¹⁾

- OCBC는 HSBC 인니 법인의 글로벌 자산관리 및 프리미어 뱅킹(IWPB Indonesia) 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27.2Q 내 완료 예정)
 - 인수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대 4.8억 SGD의 프리미엄이 포함될 전망
- 同 인수로 OCBC는 1,300명의 자산관리 전문인력과 함께 33.6만 명에 달하는 고객기반 및 66억 SGD(52억 USD)의 운용자산(AUM)을 확보
 - 해당 운용자산은 투자자산 43억 SGD, 예금 23억 SGD, 소액 대출 3억 SGD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써 OCBC 인니 법인의 운용자산은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니시장 내 OCBC와 HSBC 간 전략적 지향점이 리테일과 기업금융으로 각각 차별화


- OCBC는 잇따른 인수를 통해 인니에서의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테일 부문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을 본격화
 - OCBC는 '04년 인니의 Bank NISP 지분을 인수하며 인니에 진출하였으며 '22년 커스터디 뱅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산관리 부문 확대 기반을 마련
 - '24년 호주 Commonwealth Bank의 인니 법인을 인수하며 120만 명 이상의 고객기반을 확보한데 이어 HSBC 인니 리테일 부문 인수로 리테일 사업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
- 반면 HSBC는 글로벌 사업 구조 효율화를 추진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행 중이며 인니에서는 리테일 부문을 매각하고 기업금융 부문만을 유지하는 사업구조 단순화를 단행
 - HSBC의 핵심 기조인 'Pivot to Asia(아시아로의 회귀)' 전략 아래 아시아의PB 부문과 기업금융 부문에 집중하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비핵심 사업을 잇달아 매각·축소 하고 핵심시장인 홍콩, 싱가포르 등에 자원을 집중

[1] "Singapore's OCBC to buy HSBC wealth, premier banking portfolio in Indonesia", Reuters, 202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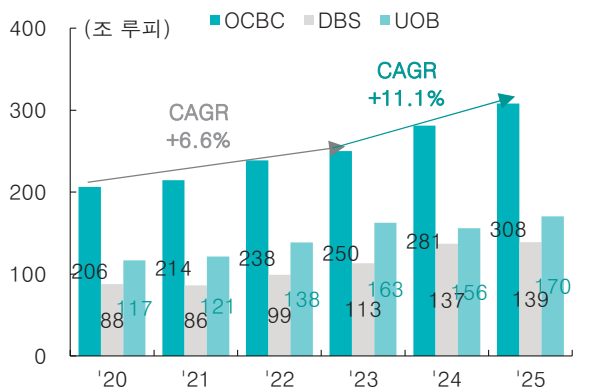
■ 한편, 싱가포르계 은행들은 동남아 공략의 일환으로 인니 리테일 부문을 강화를 추진

- 싱가포르계 은행들은 최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니의 중산층 성장에 주목하며 인니에서 디지털 뱅킹 인프라 구축과 인수를 활용해 리테일 시장 공략을 본격화
- DBS는 선제적으로 2010년대부터 인니시장의 중장기적 잠재력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digibank’를 인니에서 출시('17년)
 - ANZ 은행의 아시아 5개국(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소매 금융 및 자산관리 사업부를 인수('18년)해 인니에서만 37만 명의 고객기반을 확보
- UOB는 디지털 뱅킹과 Citi 사업부 인수를 핵심 축으로 최근 리테일 강화 행보
 - ASEAN 모바일 뱅킹 브랜드인 ‘TMRW’를 인니에서 출시('20년)
 - Citi의 아시아(인니, 말련, 태국, 베트남) 소비자금융 부문을 인수하며 인니에서는 리테일뱅킹, 신용카드, 무담보대출 등 핵심 사업 부문을 최종적으로 인수('23년)

■ 국내은행들은 자체 경쟁력과 현지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아시아 시장 전략을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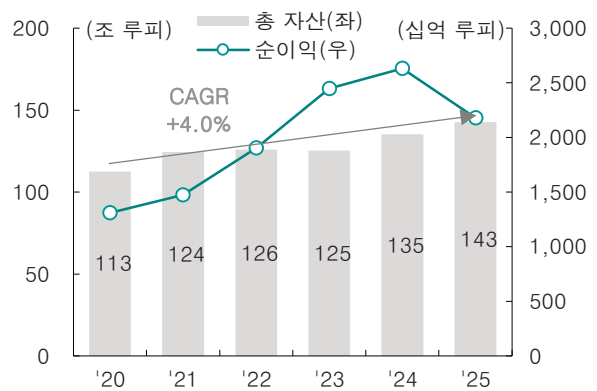
- 글로벌 은행들의 인니시장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금융 중심 고도화와 디지털·리테일 기반 확대 전략으로 뚜렷하게 다변화되는 추세
- 국내은행들은 기업금융 위주의 보수적 사업기조 고수 또는 디지털·리테일 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의 중장기 사업 방향성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 

■ 싱가포르계 은행들의 인니 법인 자산 추이



자료 : 각사 Annual Report

■ HSBC 인니 법인의 총자산 및 순이익 추이



자료 : HSBC Indonesia Annual Report

금리: 물가에 재정 우려까지, 지속되는 채권시장 악재

민 현 하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재정 우려도 커지며 상승했다. 韓 금리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주식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했다.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주장을 지속할 경우 독립성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준은 시장금리 추가 상승을 경계하기 위해 연내 동결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韓 5월 금통위는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시장금리 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 중동 발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우려도 커지며 상승

- 美 금리는 중동전쟁 협상 지연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6.2Q 국채 발행 물량 확대, 예상치를 상회한 물가(4월 CPI YoY 3.8%) 등으로 상승
 - 美 2/10년물 금리 추이(%) : 4.30일 3.87/4.37 → 5.21일 4.09/4.57(+21.4/+20.0bp)
- 日 금리는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져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日 총리의 추정 추진 발언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日 10년물 금리 추이(%) : 2.27일 2.11 → 3.31일 2.36(+24.7bp) → 5.21일 2.77(+40.8bp)
- 英 금리도 스타머 총리가(재정 관리 중시)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사퇴 압박을 받으며 재정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10년물 5.18%)
 - 다만, BOE 부총재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며 반락(5.21일 4.97%)


■ 韓 금리,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쏠림에 따라 상승

- 韓 금리는 4월 소비자물가(YoY +2.6%)가 '24.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졌고 글로벌 금리도 급등함에 따라 상승
 - 韓 3/10년물 금리 추이(%) : 4.30일 3.60/3.92 → 5.21일 3.75/4.17(+15.8/25.1bp)
- 또한, 중동사태, 관세 불확실성에도 AI發 반도체 호황과 정부 정책으로 주요 기관들이 '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p 이상 상향조정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
- 은행채 스프레드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예금 자금이 이탈하며 은행채 발행이 확대되었으며 약한 매수세로 인해 축소되지 않는 상황
 - 은행채 발행 추이(조원) : 14.6('26.2월) → 21.4(3월) → 26.6(4월) → 16.8(5.2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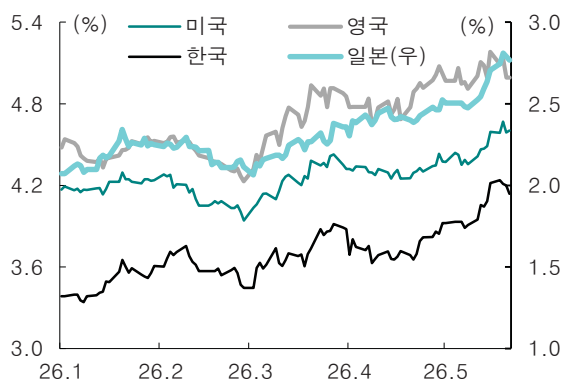
■ **美 연준, 4월 FOMC의 매파적인 동결 이후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4월 FOMC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된 가운데 현 기준금리 수준이 중립 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해 동결 기초를 유지(3.50~3.75%)
 - 파월은 펜더믹 회복기간 중 과열되었던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했던 것과 달리 현재 노동시장이 둔화기에 있어 급진적 통화정책이 불필요함을 강조
- 특히, 3인의 위원이 현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배재할 수 없음에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사용된 표현을 유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매파적 의견을 제시
- 향후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 우려로 시장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커진 상황
 - 선물시장 내 반영된 美 기준금리 전망(5월 21일 기준) : 연내 동결 39.5%, 1회 인상 41.9%

■ **韓 금리, 글로벌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락은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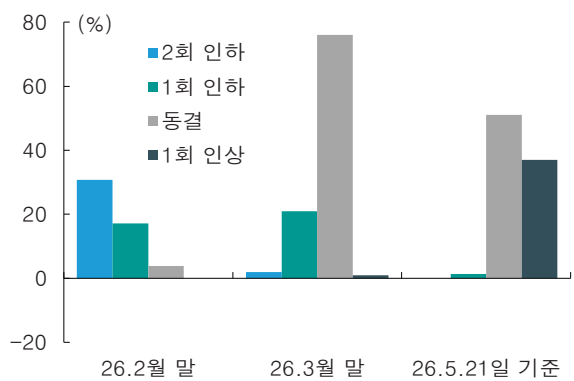
- 5월 금통위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물가 및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
- 다만, 현재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3~4회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금통위에도 불구하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특히, 재경부가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물량 부담이 축소되며 매파적인 금통위로 인한 시장 불안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韓 금리는 재정 확대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수준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50%~3.85%, 3.95%~4.20% 범위로 전망 

■ 주요국(미,영,일,한)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 선물시장 내 반영된 美 기준금리 전망치 변화



자료 : CME Fedwatch

외환: 외국인 증시 대량 순매도로 상승

이 동 현 연구원

원/달러 환율은 종전 협상 교착에 따른 유가 급등 및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종전 합의 기대감이 재부상하며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다. 달러화는 지정학적 리스크 재고조로 인한 안전통화 수요 확대 및 미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6월 금리인상 및 연내 추가 인상과 양적 긴축 완화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며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예측된다. 원/달러 환율은 수급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네고물량 확대, 종전 기대감 등으로 1,460~1,530원에서 변동성 장세가 전망된다.

■ [원/달러 환율] 중동 사태 교착 지속 및 외국인 증시 매도세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종전 협상 교착 지속과 美 이란 공격 재개 검토 소식에 따른 유가 급등 및 위험회피 심리 확대로 상승하여 1,500원대 재차 진입
 - 호르무즈 폐쇄 장기화 우려 속 국제유가(WTI 기준)는 100달러를 상향 돌파
- 반도체 수출 호조 및 WGBI 자금 유입, 한국은행 금리인상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증시 순매도 등으로 원화 약세 압력 확대
 - 외국인은 5월 한 달간 40조원 이상(5.21일 기준) 순매도하며 원화 약세 압력 강화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최종 단계 발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 및 유가 급락으로 상승폭 일부 되돌림


■ [국제 환율] 美 달러화, 중동 군사적 긴장감 확대 및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강세

- 美 달러화는 중동 사태 장기화 및 군사적 긴장 재고조에 따른 안전통화 수요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강세
 - 美 4월 PPI는 예상치를 대폭 상회(MoM, 1.1%, 예상: 0.5%)하며 '22년 3월(MoM, 1.7%) 이후 최대 상승폭. 미국채 30년물 수익률은 5%대로 '07년 이후 최고치 경신
- 유로화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ECB의 추가 긴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달러 강세 및 파운드화 약세 동조 등으로 약세
 - 英 정치적 불확실성 및 유력 총리 후보의 확장 재정 우려는 파운드화 약세 배경
- 엔화는 당국의 개입 경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고유가發 경기 하방 압력 및 다카이치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 등으로 약세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보조 등을 위해 수조 엔 규모의 추경 검토

■ BOJ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및 국채매입(양적긴축) 속도 조절에 주목

- 이란 전쟁 장기화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인플레이션 억제 및 마이너스 실질금리에 대한 경계 측면에서 선제적인 통화정책 긴축 필요성 확대
 - BOJ위원들은 명백한 경기 하강 신호 부재 시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반복적으로 제시
- 민간 주도의 임금 상승(3년 연속 5%대 인상)과 민간소비 중심의 성장세 등 日경제 기초체력 강화로 시장은 6월 금리인상과 함께 연내 2회 인상 전망 확대
- 한편, BOJ 6월 회의에서는 '27년 4월 이후 국채매입 규모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장기금리의 가파른 상승 억제 등 시장안정을 위한 양적긴축 완화 가능성 제기
 -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축소의 상반된 정책으로 엔화의 단기 변동성 확대 전망

■ 원/달러 환율은 상·하방 요인의 혼재 속 변동성 장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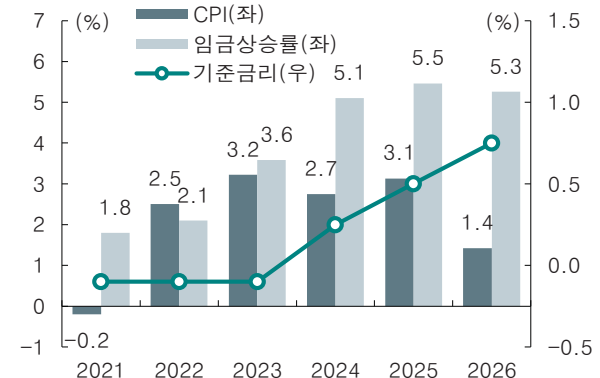
- WGBI자금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내 증시 시총 비중 급증('25.3월: 32% → '26.5월: 39%)에 따른 증시 매도 압력으로 수급여건 악화가 이어질 전망
 - '26.5월 KOSPI 시가총액(약 6,150조원)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 1%p 감소를 위한 매도 금액은 약 61조원으로 추정되며 장기평균(약 33%) 고려시 추가 매도 예상
- 수급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상단 인식에 따른 네고물량 확대, 중동 정세 완화 기대감 등 상·하방 요인의 혼재 속 변동성 장세 지속 전망
- 주요국들(美·日·EU 등)의 긴축기조 전망에도 불구하고 韓 GDP 서프라이즈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원/달러 환율은 1,460~1,530원에서 주거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日 CPI 및 임금상승률, 기준금리 추이



주 : '26년 CPI는 4월까지의 평균, 기준금리는 기말기준
 자료 : 日총무성, 일본노동조합총연맹회, BOJ

부동산: 주택시장의 지역별 회복 속도 격차 심화

이재원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규제지역은 상승 폭이 확대되었지만, 지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수도권은 평균 및 중위매매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상승하였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를 시행한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였다. 또한, 세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가주택은 관망세, 중저가주택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으며 수도권은 상승 폭이 확대

- 수도권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나 지방은 전반적인 하락세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
 -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MoM) : 0.23%(2월) → 0.15%(3월) → 0.16%(4월)
- 수도권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급매물 소진과 전월세 및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지만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는 하락세가 지속
 - 주요 지역 변동률(% , MoM, 3월/4월) : 서울 강남구 -0.39/-0.22, 경기 과천시 -0.22/-0.26
- 지방광역시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울산(0.37%)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대전(0.02%)은 상승 전환, 광주(-0.24%)는 하락 폭이 확대
 - 5대광역시 주택가격 변동률(% , MoM) : 0.06%(2월) → 0.00%(3월) → -0.01%(4월)

■ 서울 아파트 평균 및 중위매매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상승

-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및 중위매매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시행('12년)된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
 - 주요 지역 평균/중위 매매가격(억원) : 서울 13.2/10.0, 경기 경부1권^[2] 9.8/7.7
- 규제지역 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울 외곽 및 경기 지역이 상승세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원인
- 정부의 규제로 수도권 핵심지의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였지만, 변동이 크지 않은 중위매매가격이 최근 상승한 것은 시장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

[1] 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중앙값을 의미

[2] 경기 경부1권은 과천시, 성남시, 안양시 등 5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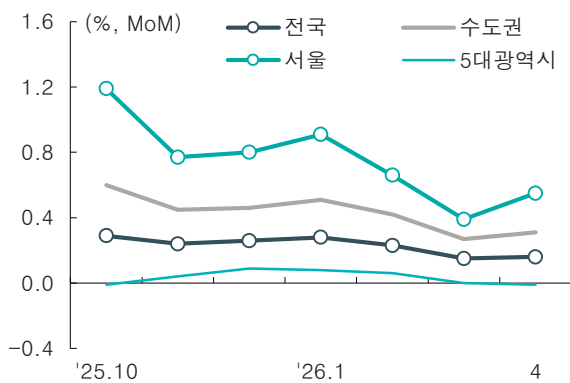
■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대상 확대

- 5.9일 이후 거래절벽 완화 및 매물증가를 위해 실거주 유예 대상 범위를 기존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 발표일(5.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모두 유예 대상이 되며, 거래 시 12.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4개월 내 취득(등기)이 필요
-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로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를 기대
 - 다주택자 매도 물건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서울): '25년 평균 56% → '26.3월 73%
- 다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선순위인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 세입자가 없는 주택보다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대출규제와 세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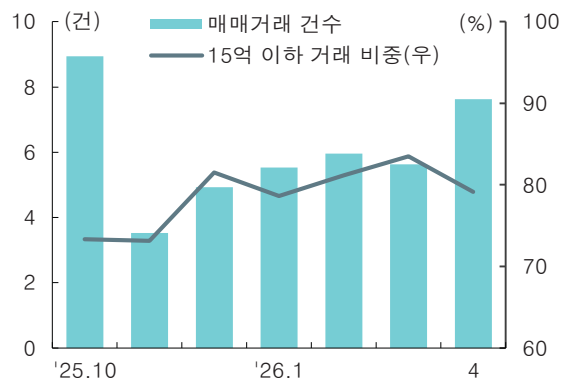
- 규제지역 내에서 고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건과 DSR 한도 면에서 여유가 있는 15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시장의 거래 비중이 상승
 - 서울 15억원 이하 주택 거래 비중(%) : 77.3%('25.3Q) → 75.6%(4Q) → 81.1%('26.1Q)
- 또한, 중저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 한도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³⁾ 부근에 위치하거나 소폭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담이 적은 상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확정에 이어 하반기 세제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향이 큰 고가 주택의 경우 관망세가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주 :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를 활용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³⁾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는 공시가격 12억 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거래가 12억 원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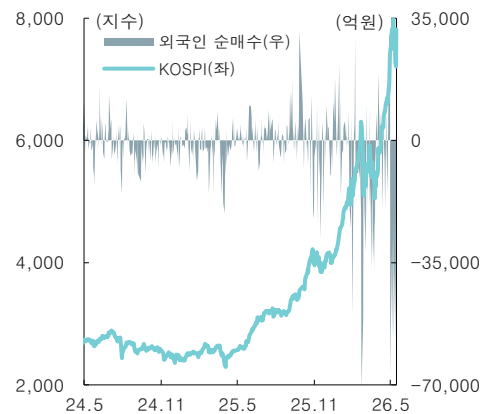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25월말	2.63	2.81	2.79	3.48	2.95	3.24
4월말	2.55	2.81	3.14	4.25	3.60	3.78
5월 15일	2.53	2.81	3.23	4.39	3.77	4.02
5월 18일	2.52	2.81	3.23	4.38	3.76	3.99
5월 19일	2.51	2.81	3.23	4.38	3.75	3.97
5월 20일	2.52	2.82	3.24	4.39	3.76	3.97
5월 21일	2.53	2.81	3.24	4.38	3.75	3.99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25월말	4,214.2	132,135	408	-4,886
4월말	6,598.9	358,086	685	-14,622
5월 15일	7,493.2	595,485	886	-56,607
5월 18일	7,516.0	446,092	567	-36,519
5월 19일	7,271.7	379,610	534	-57,474
5월 20일	7,209.0	404,010	492	-29,499
5월 21일	7,815.6	431,871	621	-2,196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4년말	1,472.5	934.1	201.4	1,522.7
'25월말	1,439.0	916.1	204.4	1,686.3
4월말	1,483.3	947.1	217.2	1,740.0
5월 15일	1,500.8	945.3	220.4	1,744.4
5월 18일	1,500.3	944.5	220.6	1,748.5
5월 19일	1,507.8	947.7	221.2	1,749.7
5월 20일	1,506.8	948.2	221.5	1,751.3
5월 21일	1,506.1	947.2	221.3	1,7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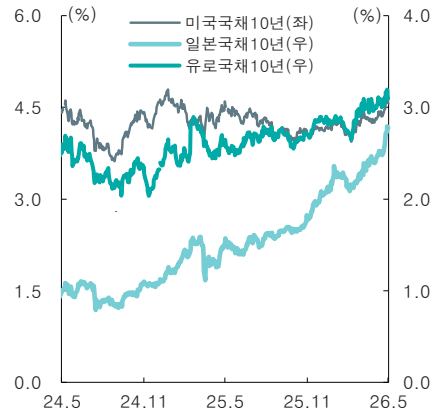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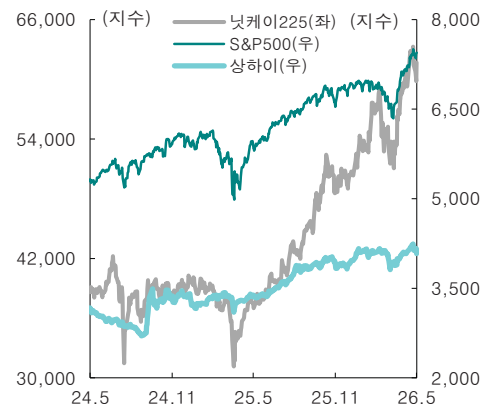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4년말	4.33	4.69	4.24	4.57	1.10	2.37
'25월말	3.64	4.01	3.47	4.17	2.07	2.86
4월말	3.64	3.67	3.87	4.37	2.53	3.04
5월 15일	3.63	3.66	4.07	4.59	2.72	3.17
5월 18일	3.63	3.66	4.04	4.59	2.74	3.15
5월 19일	3.62	3.66	4.12	4.67	2.79	3.19
5월 20일	3.62	3.65	4.06	4.59	2.78	3.10
5월 21일	3.62	3.65	4.08	4.57	2.77	3.10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25월말	6,845.5	50,339.5	3,968.8	5,791.4
4월말	7,209.0	59,284.9	4,112.2	5,881.5
5월 15일	7,408.5	61,409.3	4,135.4	5,827.8
5월 18일	7,403.1	60,816.0	4,131.5	5,849.0
5월 19일	7,353.6	60,550.6	4,169.5	5,851.2
5월 20일	7,433.0	59,804.4	4,162.2	5,976.1
5월 21일	7,445.7	61,684.1	4,077.3	5,960.3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25월말	156.63	1.175	61.6	4,341.1
4월말	156.61	1.173	112.2	4,629.6
5월 15일	158.76	1.162	107.3	4,561.9
5월 18일	158.76	1.165	107.9	4,558.0
5월 19일	159.01	1.161	106.8	4,511.2
5월 20일	158.84	1.162	106.6	4,535.3
5월 21일	158.96	1.162	103.7	4,536.1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6년 5월 22일 인쇄

2026년 5월 26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0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